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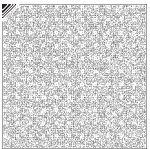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40호

2021년 5월 16일(나해)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또는 4,1-13 또는 4,1-7.11-13>

복음환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 마르 16,15-20L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 최고의 선교 방법

지난 4월 27일 선종하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서는 항상 선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식별을 하는 기준이 선교라고 말씀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에 앞서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보셨다는 것입니다. 정 추기경님은 본인의 사제 서품식 중 땅에 엎드려 성인들에게 기도하실 때도, “하느님,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청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정 추기경님께서 사제가 되실 때만 해도 우리 국민의 10%가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요원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실제로 인구의 10%가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정 추기경께서는 어린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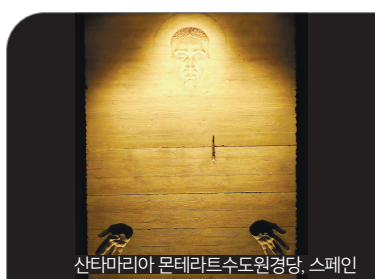
이처럼 그분의 첫 번째 지향은 늘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가톨릭 신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지론은 가톨릭 신자들이 신자답게 열심히 살면 선교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는 교회의 최우선 사명이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선교는 파견

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 missio에서 따온 말입니다. 선교라는 단어의 어원 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와 신자들을 파견하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세상 어디서나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은총과 자비의 선물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물론 오늘날 최고로 발달된 모든 소통 수단을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용(contents)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자들의 삶을 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나눔, 친절과 호의로 이루는 신자들의 삶이야말로 선교의 최고 수단이자 내용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 공동체의 거룩한 삶은 동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보였던 삶이었습니다(사도 2,42-47). 사람들은 교회의 양태와 신자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자연히 신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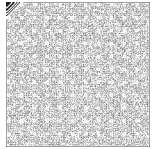
산타마리아 몬테라트수도원경당, 스페인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마주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진 듯 느껴졌습니다. 음각으로 조각된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그리고 얼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에게도 사랑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절절이 와닿습니다.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유용 베네딕토 | 서울시의원

간수가 빠져야 진짜 소금입니다

학생 시절 어느 겨울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차비를 좀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천 원을 주며 그 사람이 추울까봐 제 겨울 잠바를 벗어주고 집에 왔습니다. 그것을 본 할머니께서 옷(잠바) 어쨌냐 하시길래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러다 제가 얼어 죽을 놈이야.” 하시며 회초리로 매우 때리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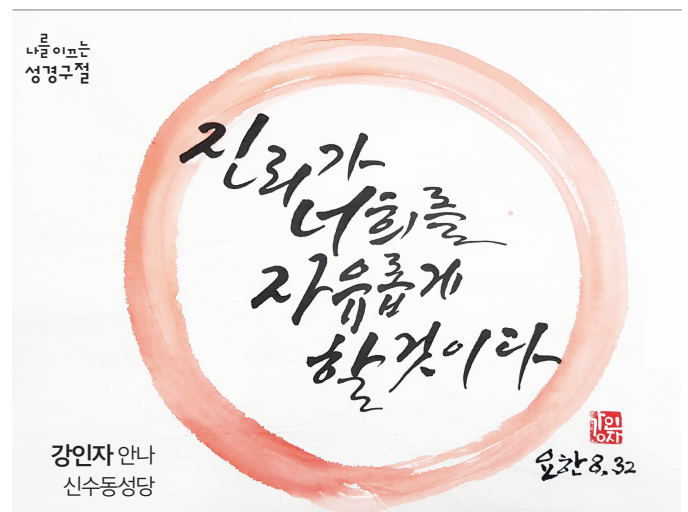
어떤 날은 밤이 늦어 집으로 가는 길인데, 지하철역 계단 아래 아들 포레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깡통을 놓고 떨고 있었습니다. ‘천 원짜리가 있나.’ 하고 지갑을 살짝 봤더니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깝다 싶어서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데, ‘만 원이 그리 아까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빵하고 물을 5천 원어치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가서 그 어린 친구에게 그것들을 주고, “추우니까 어서 들어가.” 하며 나머지 거스름돈 5천 원을 쥐여 주고 돌아서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가장 따뜻하게 이웃들의 옷을 얻어 입고, 가장 맛있게 이웃들의 빵을 얻어먹으며, 이웃들의 호의를 입은 것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되새기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저는 선거에서 여러 번 좌절을 겪었는데,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주변의 이웃을 알고, 지역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약 그 이웃분들의 사랑과 도움,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족한 저를 깨우치고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많은 세월, 저를 갈고 닦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간신히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제야 저는 그동안의 과정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함부로 했던 행동들, 건방진 생각들을 비롯하여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되려면 10년 정도는 지나서 간수가 완전히 빠져야 하고, 그제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 5,13-16 참조)이 되라고 하시는데, 제가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더 간수가 빠져야 할까요? 전 아직도 간수가 한참 덜 빠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고,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실 소금이 되고 싶으니, 간수가 더 빠지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배려하는 사제 최양업 토마스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히브리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히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신부님들은 본당과 특수사목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성무활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인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사목적 배려’일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보다 더 큰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들을 직접 찾아가 배려하는 사목을 하셨던 이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신학생 시절의 토마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때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가 1위(성부)보다 덜 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1839.6.23, 리브와 신부)

유교적 양반 관료제의 신분 사회에서 자랐던 토마스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뿌리 깊은 가르침을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대표였던 리브와 신부는 소년들에게 교리를 이해시키는 데 매우 애를 먹었다고 토로합니다.

14년간의 긴 유학과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최양업 신부님은 교우촌을 다니면서 양반제도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목격합니다.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저들은 포악한 조정의 모진 학정 아래 … 시달리고 있습니다.”(1850.10.1.)

“우리 포교지의 상태는 신자들 중에서 신분의 계급 차이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므로 분열이 일어나서 큰 걱정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덕(信德)과 형제애가 부족하고,

계속되는 논쟁과 암투와 증오로 신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비건설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시정할 무슨 대책은 없는지요?”(1854.11.4.)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양업 신부님은 많게는 하루에 100리, 적게는 40리, 그렇게 산길 교우촌을 찾아 다니며 해마다 평균 4,000여 명의 신자들을 찾아 성사를 집전하고, 연말에 스승 신부에게 편지를 쓰면서 1년간의 성무활동을 보고합니다. 첫째 교우촌 방문을 마치고 많은 교우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비위생적인 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승 신부님께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신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성물을 자주 요청합니다.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배려는 바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양반제도의 차별을 극복하고, 신자들의 더 나은 삶과 신앙을 위해서 11년 6개월 동안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배려하는 사제’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오늘(5월 16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55차 ‘홍보 주일’입니다

교회 도서출판과 신문 방송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들의 발전을 위해 홍보 주일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홍보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발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하 메시지에서 “온 세상에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욱 많은 중생들이 진리를 깨우치는 삶으로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28세)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1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2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주보 @seoul_jubo
인스타그램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교구청알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조수선 개인전: 1전시실

장천석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5월19일(수)~31일(월)

김수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19일(수)~24일(월)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건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6월2일~10월2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5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2021 노인주일 제정 기념 신앙 수기 공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제정하신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일을 기념하여 신앙 수기를 공모하러 합니다
공모기간: 6월6일(일)까지 / 시상내용: 사랑상, 믿음상, 희망상(총48명, 총상금 2천3백2십만원)
문의: 02)727-2385~6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enior.or.kr) 참조

공모 자격 및 부분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중 ① 손자녀 세대에겐 신앙을 전달한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 ②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원)생 및 성인 신자(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 수도자, 사제 포함)
공모 주제	손자녀들과 함께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이야기(조부모 수기)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성장한 나의 신앙 이야기(손자녀 수기/그림)
공모 요령	수기: 원고 분량 A4매 이내(손글씨로도 응모 가능) 그림: 어린이(2009년생부터 가능) 8절 도화지

명동대성당 나눔교리 봉사자 모집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봉사해주시는 나눔교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나눔 봉사자 갱신 교육(2차)

대상: ‘함께하는 여정’ 교육 수료자(갱신 교육 1차 신청자 제외) / 방식: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2시간 소요)
때: 6월1일(화)~30일(수) /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회비: 2만5천원(교재비 포함) /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5월21일(금) 마감)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이 에메렌시아’
때: 매달 셋째주(화) 5월18일 오전 11시(163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당일 선착순 마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70차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5월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청계동, 장연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단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회원전용 - 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 및 등록: 5월31일(월)~29일(토)까지 / 3개월 수업(6월~8월) / 문의: 02)393-2213~5(www.casm.site)

여름 학기	실기 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양상별	그레고리오성가(남·여) · 성악(남·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2021학년도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신입생 모집: 5월(예정)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 032)930-8500, 8534

교구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세례받은 분 / 업무: 행정, 홈페이지, DB관리 1명(15개월 계약직, 프리미어프로 사용자 우대)
주5일 근무(토·일 근무)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5월31일(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림동 소재)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5월31일(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주보는 교회의 기록지, 계속 진화해야 한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월 27일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이에 서울주보는 5월 2일 자에 맞춰 정진석 추기경님 선종 관련 특별 보도판(특보)을 발행했습니다. 이 특보는 보통 교회 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교황님 선종, 새 교황님 선출, 교황님 방한, 새로운 우리나라 추기경 임명, 교구장 선종, 교구 재무제표 공개 등 교회에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자료와 사진들을 편집하여 발행합니다. 서울주보의 특보가 발행되면 그만큼 특보가 다룬 그 사건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주보 특보의 위상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 때였습니다. 서울주보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특보를



지속적으로 발행했는데, 이때 몇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시 교황청 대변인이셨던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의 글을 서울주보 특보에 실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글을 쓰기 위해 각종 언론들이 무척 많은 시도를 했을 텐데, 처음으로 글을 받아서 실은 매체는 서울주보 특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교황청에서도 서울주보에 믿음과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주보 특보에 실렸던 염수정 추기경님의 글을 모 유명 일간지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실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여태까지도 유일무이한 예일 것입니다.

2014년 교황 방한 서울주보 특보에 게재된 글
왼쪽 롬바르디 신부님 글, 오른쪽 염 추기경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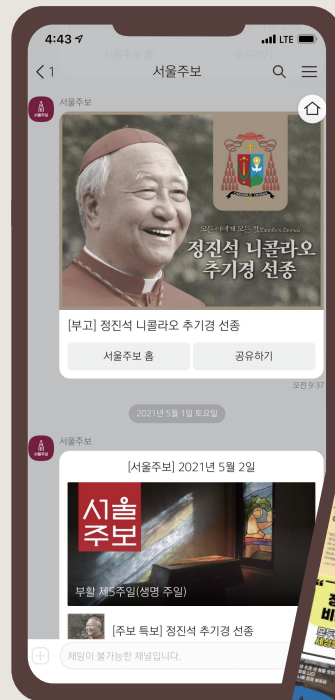
이번 정 추기경님의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 내외가 기도할 때 보고 있던 인쇄물이 서울주보 특보입니다. 주보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주보를 처음 발행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라고 합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주보는 본당 단위로만 발행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본당과 신자가 늘어나면서 교회는 교구 중심의 발행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통합 주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독자층인 신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종교, 미술, 역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관심이 증폭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서울주보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경향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주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례 안내지만 이 아니라 다양한 필진이 참여하는 영성 교육, 신앙 재교육의 통로로도 기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 소식 면은 교계 도서 외에도 연극, 영화, 음악회, 뮤지컬 등 교회 안팎에서 마련된 문화행사를 전하고 있는데, 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보 지참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문화프로그램도 시행했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종이 주보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주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매체와 경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주보는 온라인 서울주보를 출범시켜, 신자들이 다양한 신규 매체(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를 통해서 교회 메시지를 비롯한 서울주보의 콘텐츠를 더욱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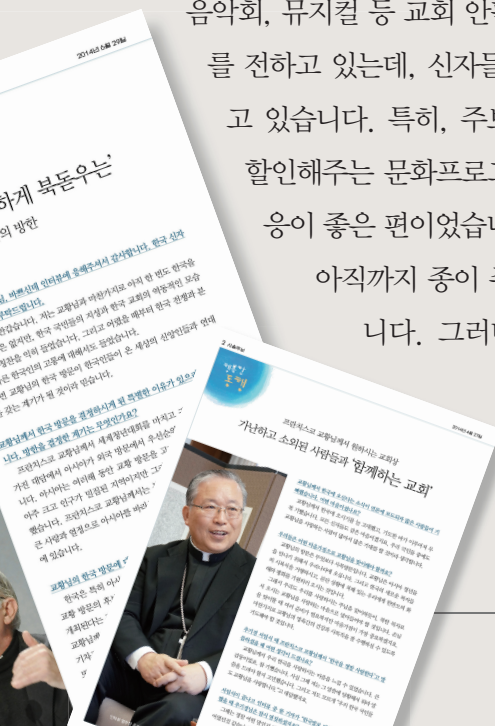


▶ 서울주보 카카오톡채널



▶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앞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과 체계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주보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앙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서울주보가 추구하는 이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것에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해결 가능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이해가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한 이치입니다. 내용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드러나는 모습과 형태는 끊임 없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서울주보의 내일은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ICPE선교회 일일 피정

주제: 인격적 신앙 / 문의: 010-7548-6664
때, 곳: 6월13일 10시~17시, 마리스타(합정동)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때: 6월9일·16일·23일·30일(수) 14시~17시(4회) / 회비: 10만원
곳: 씨튼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접수): 010-4731-2468 최안나(예관성베네딕도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5월28일(금)~31일(월)·6월11일(금)~14일(월)
·6월25일(금)~28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0차	6월11일(금)~19일(토)	문의: 061)373-3001,
제91차	7월16일(금)~24일(토)	010-3540-9001

어르신 사말 피정 '죽음-웨다잉(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추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5월25일(화) 10시~13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월 셋째주(화) 10시~13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6월7일~10일, 6월13일~16일
자연순례 피정	5월22일~24일, 5월28일~30일, 6월19일~21일, 7월23일~25일, 7월30일~8월2일

가정선교회 6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영성 1일 피정	6월1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첫도 성모 신심미사	6월5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5월24일~6월7일 매주(월)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5월25일~6월8일 매주(화) 13시~17시	회비: 15만원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5월23일(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카카오톡 '성서가족 열린미사' 검색

교육

미사반주자 오르간 교육 / 문의: 010-3203-8183
곳: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주최) 천호동성당 내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144기 온라인(유튜브) 복음화학교 개강

때: 6월7일(월) 19시·6월9일(수) 14시·6월10일(목) 10시 /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본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학교밖청소년 모집 및 성인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문의: 02)382-5652
내용: 검정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크업·목공·연극·영상·사진·댄스·제과제빵 등) / 회비 없음
자원봉사 모집: 검정고시 / 수능준비 수업 멘토링
곳: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서울대교구 푸르실로 주최 신앙 강좌

강좌: 배광하 신부와 함께하는 신앙산책 학교(20강좌)
내용: 미사, 신앙애, 상처와 치유, 고통과 부활, 성경 등
대상: 모든 신자 누구나(신청순 80명) / 문의: 02)337-8588
때: 6월1일~8월10일 매주(화) 15시~17시
곳: 푸르실로 회관(마포구 합정동) / 회비: 10만원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프로그램

담당: 권효섭 신부 / 홈페이지: <http://inogopress.kr>
때: 6월 시작 예정, 매주(월·수·금) 오후 중(선택)
곳: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선택) / 선착순 접수
문의: 02)3276-7799 (문의시간: 10시30분~16시)

영신수련, 그 은총의 동반(택1) - 개별동반, 면담을 통한 영적 성장	동반과정1 전례주기와 함께하는 영신수련, 동반과정2 영신수련에 기초한 영적 성장
영의 식별상담	기도회 은사봉사자 및 관심 있는 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전형 원서접수: 5월17일(월)~27일(목)-전형일 6월12일(토) / 인터넷(www.jinhakapply.com) 접수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석·박사 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모집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재속 맨발 가르멜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건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4일 / 문의: 010-3217-8235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5월17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3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모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서울 후원회 미사 / 내용: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때, 곳: 5월21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명동)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코로나19 대응 위해 인원제한: 접수 필수

인내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문의: 010-8985-9971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개인 면담 시간을 마련합니다
때, 곳: 매주(금) 오전 9시30분~11시30분, 남양주시 별내동

꼬메스심리상담소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동행
심리상담·영성상담·전화상담(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제106회 언택트 가톨릭독서콘서트

때, 곳: 5월27일(목) 오후 8시, 청담동성당 2층 대성전
작가: 한수산 작가 / 주제: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
문의: 02)3447-0750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롤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심리·가족상담 / 문의: 02)990-9360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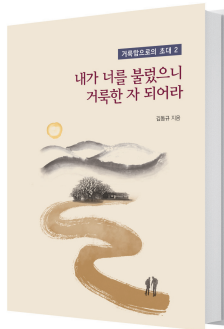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5월25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명상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개인상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 자기이해, 타인이해, 관계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분
자격과정	미술심리상담사 5월29일~6월26일(토) 10시~15시(5회)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내가 너를 불렀으니
거룩한 자 되어라

김동규 지음
기쁜소식 | 116쪽 | 8천원
문의: 02)762-1194

대전교구 김동규 신부의 '거룩함으로의 초대'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성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묵상한 내용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성조들의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역시 여러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열왕기 상권, 하권 문제집)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 성서와함께
열왕기 상권 60쪽 · 열왕기 하권 64쪽
각 4천원 |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날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구약성경과
작은 신들

주원준 지음
성서와함께 | 260쪽 | 1만4천원
문의: 02)822-0125

주원준 박사는 구약성경의 여러 단어를 해집어 그 밑에 깔려 있는 고대근동의 삶과 신앙의 정체를 드러낸다. 구약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주변 문화와 다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구약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존중하며 깊이 바라보게 된다.



연극

뷰티풀라이프

공연시간: 목~금 20시, 토 15시·18시, 일·공휴일 14시·17시
입장료: 전석 4만원 / 문의: 02)719-0988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70% 할인

연극 <뷰티풀라이프>가 JTN 아트홀 4관에서 오픈 런으로 공연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부부로서 살아가며 생기는 사소함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다툼,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등 이시대의 복잡한 가정의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낸 연극이다.



연주회

서울시합창단
<오월의 브람스>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티켓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청소년 및 학생 할인 50%)

서울시합창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오월의 브람스>가 5월25일(화)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작곡가이지만 작사가인 듯 의도적으로 가사를 편집하거나 음악으로 대체해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브람스의 합창곡 두 작품을 선보인다.



연주회

제184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장엄미사>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02)580-1300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30% 할인 (R석, S석)

2021년 국립합창단 위대한 합창 시리즈 I <베토벤 장엄미사>가 5월25일(화) 19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베토벤 최후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장엄미사>와 고전음악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음악 구조를 지닌 <합창환상곡> 레퍼토리로 정통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진행순서: 견진교리 신청 ➡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완료 ➡ 견진성사 접수 & 전례연습 ➡ 견진성사

1. 견진교리 신청 ☞ 4월 20일(화) 신청순 마감

2. 비대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견진교리를 신청하고 개인별로 발급 받으신 온라인 클래스 로그인 ID & Password를 입력 후 수강 방법에 따라 아래 기간 내에 반드시 총 7강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기간 : 5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

3. 견진성사 접수 & 전례연습

·접수대상 : 견진교리 신청자 중 5월 15일(토) 오후 6시 까지 동영상 강의 시청을 완료한 이

·접수일시 : 5월 16일(주일) 오후 1시 ~ 3시

·접수장소 : 명동대성당 내 '만남의 방' 앞마당

·준비사항 : 접수비 1만원 (코사지+사진값), 감사예물 (정성껏 준비)

※접수 후 전례연습을 위해 대성전으로 이동하십시오.

※견진성사 접수 및 전례연습 불참 시 견진성사 불가 !

4. 견진성사

·견진성사 : 5월 23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오후 1시부터 '만남의 방' 앞에서 출석 확인 후 코사지와 명찰 수령

☞ 오후 1시 30분까지 대성전 입장 완료 !

※견진성사를 위한 내적인 준비로 고해성사는 사전에 미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헌금과 미사보(여성)를 준비해 주십시오.

·문 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토요일		[12:00~13: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 2021 명동 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 · 셋째 주일) 10:00~16:00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와 개인 반찬그릇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명동대성당 청년 레지오 마리아 신입단원 모집

·문 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명동성당 청년 레지오' 검색하여 1:1 문의

·회 합 : 매주 주일 오전 10시~ / 온라인 주 회합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회합은 온라인 비대면 회합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1년 춘계 정기 총회를 통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백신 나눔 운동'에 모든 교구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하는 이 '백신 나눔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 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명동대성당 미사 (2020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 · 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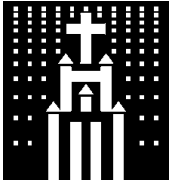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성당 내 음식 및 음료수 반입 금지

성당 안은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성당 안에서 음식물과 음료 등을 섭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영성체 한 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공복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성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 르 티 노) 신부
부 주 임 김한국(베 드 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축하합니다 》

오는 5월 22일(토)은 본당 전례 담당이신 이 름 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상반기 견진성사 》

- 일시 : 5월 23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 주례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견진성사 당일 숙지하실 사항은 주보 안쪽 면 '2021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공지 4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홍보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제55차 홍보 주일로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홍보 주일 2차 헌금은 세상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서울 대교구에서 설립한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 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5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1,688,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구청본관·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

5월 한 달 사용 불가 !

방수 공사로 인하여 5월 한 달 간 교구청본관·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우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평일과 주일 미사 참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2일부터 공사 종료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중단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미사 참례 지침 안내

(※5월 16일 현재)

단 계	미사 참례 지침
1단계	1~2미터 간격을 두고 띄어 앉기
1.5단계	좌석 수의 3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375명)
2단계	좌석 수의 2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250명)
2.5단계	좌석 수의 1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125명)
3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주례자+스태프)만 입장

※상기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미사 참례 지침에 따라 주보 발행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본당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나눔교리 봉사자 모집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봉사해주실 나눔교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성당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3-5/9).....23,193,000
• 부활 제 6 주일 헌금.....14,619,000
• 감사헌금 (5/3-5/9).....1,065,000
김 가브리엘라 / 김 노엘라 / 김 바오로
김 아델라 / 이 미카엘라 / 임 사무엘
장 레오 / 진 크리스티나 / 최 안나 / 익명(1)